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가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양 남 영¹⁾ · 박 지 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최근 청소년 성범죄, 젠더 혐오, 젊은 세대의 성별 갈등, 그리고 ‘#MeToo 운동’ 등과 함께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이다[1]. 젠더 감수성은 성별 차이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공감적으로 해석하여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현상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양한 차원과 맥락으로 확장함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또한 성별 차이 인식을 넘어, 그 차이가 실생활에서 유형·무형의 차별과 불균형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역량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분석하고 성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sexuality)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는 시기로 개인이 경험하는 성적 자극이나 정보의 종류에 따라 성 인식과 태도, 젠더 감수성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1].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성적 발달과 성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규범, 윤리, 정체감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4, 5]. 그러나 최근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나 성차별적·성폭력적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왜곡된 성인식과 부적절한 태도가 형성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5]. 이에 따라 고등학생의 성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젠더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리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한다[6]. 미디어 리터러시는 광고 속의 성적 대상화나 드라마 속 고정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젠더 감수성은 더욱 깊이 내면화될 수 있다[5].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성적 메시지나 젠더 정보 영역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왜곡된 성 지식을 걸러내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유해한 성적 담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성인지적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속 왜곡된 성 정보와 편향적 사고를 억제하고, 성적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결정적 기제로 기능한다[5, 13].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길러진 비판적 사고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13]. 따라서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젠더 감수성 간의 연관성을 성 관련 영역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표현(Assertiveness)은 개인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요구사항을 억압하지 않고 음성이나 신체언어를 통해 솔직하게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9]. 자기표현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이다[8], 이는 대면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소통은 물론, 온라인 게시

주요어 : 미디어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젠더 감수성

1) 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2-0226-3379>)

2) 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https://orcid.org/0009-0008-3980-1880>) (교신저자 E-mail: psmile7@daum.net)

투고일: 2025년 12월 02일 수정일: 2025년 1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6일

글이나 메시지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간접적 표출 방식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청소년일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적게 경험하며, 교우관계에서도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젠더 감수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이는 고착화된 성별 분업이나 역할 모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따라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은 고정된 성역할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과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적·정서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25]. 그러나 젠더 감수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기표현 능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고등학생 집단의 자기표현 능력과 젠더 감수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는 학술적으로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얻는 여러 형태의 조력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10]. 결국 핵심은 타인이 보여주는 지지적인 행동에 대해 본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인지적 판단에 달려 있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관계의 균형을 학습하며 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해 나간다. 이때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인관계적 신뢰는 청소년기 이후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삶의 전환기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중대한 자원이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11,12]. 따라서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성 관련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타인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젠더 감수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간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권의식, 성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성태도, 성허용성 등이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1,5,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시기의 미디어 활용과 자기표현 방식, 그리고 부모·교사·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젠더 감수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의 젠더 감수성의 관련 요인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향후 젠더 감수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및 사회적 지지가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젠더 감수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성과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도 소재 일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고등학생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이고, 대상자 제외 기준은 스스로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이다. 표본 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G-Power version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연구한 선행연구[13]를 근거로 효과크기 .15(중간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8개로 설정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0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1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 분석 조건을 충족하였다.

연구 도구

● 젠더 감수성

젠더 감수성은 Kim과 Seo [14]가 개발한 젠더 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여성혐오 6문항, 적대적 성차별 5문항, 온정적 성차별 6문항,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5문항, 성폭력 인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 감수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Seo [1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Ahn 등[15]이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를 Yuk과 Park [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비판적 이해 7문항, 기술적 활용 8문항, 자아표현 4문항, 관용성 3문항, 공공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k과 Park [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 자기표현

Byun과 Kim[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내용적 영역 9문항, 언어적 영역 7문항, 비언어적 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Byun과 Kim[7]의 연구에서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Nolten [18]이 개발한 학생 사회적 지지 척도를 Lee [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부모 지지 9문항, 교사 지지 9문항, 또래 지지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8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3월 24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학급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존중하여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였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학생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 뒤, 동의서에 포함된 QR 코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가보고식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며, 참여한 학생들이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Shapiro-Wilks test를 이용하여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은 $p>.05$ 로 정규성이 확인되어, 모수통계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젠더 감수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 후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젠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연구는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_IRB_2025-***)을 받은 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 참여의 자율성,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설명문 또는 대면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대상자와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생기는 유익한 점과 참여 중단 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렸다. 연구 외의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설문 응답은 익명 처리 후 암호화하여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안전하게 저장·관리되며,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것임을 연구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젠더 감수성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5.4%(54명), 여학생 54.6%(65명)이

있고, 학년은 1학년 27.7%(33명), 2학년 37.8%(45명), 3학년 34.5%(41명)이었다. 주관적 학업 성적은 상 10.1%(12명), 중 68.9%(82명), 하 21%(25명)이었고, 학교의 성교육 만족도는 만족 18.5%(22명), 보통 66.4%(79명), 불만족 15.1%(18명)이었으며,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만족 47.9%(57명), 보통 41.2%(49명), 불만족 10.9%(13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젠더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t=-5.43$, $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3.77 ± 0.50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기술적 활용은 4.15 ± 0.5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판적 이해 3.80 ± 0.57 점, 관용성 3.69 ± 0.77 점, 자아표현 3.58 ± 0.80 점, 공공성 3.04 ± 0.99 점 순이었다. 자기표현은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3.40 ± 0.50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비언어적 영역은 3.53 ± 0.58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적 영역 3.47 ± 0.71 점, 내용적 영역 3.29 ± 0.50 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4.06 ± 0.67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부모 지지는 4.11 ± 0.77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 지지 4.10 ± 0.73 점, 친구 지지 3.98 ± 0.73 점 순이었다. 젠더 감수성은 5점 만점 중 평균평점 3.39 ± 0.55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여성혐오는 3.49 ± 0.7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온정적 성차별 3.43 ± 0.79 점, 적대적 성차별 3.36 ± 0.77 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3.36 ± 0.74 점, 성폭력 인식 3.30 ± 0.48 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에서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r=.35$, $p<.001$), 젠더 감수성과 자기표현($r=.23$, $p=.012$), 젠더 감수성과 사회적 지지($r=.37$, $p<.0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젠더 감수성은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젠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젠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성별을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명목변수인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한 후 다중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3~.92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8~1.59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5.84$, $p<.001$), 수

<Table 1> Difference of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단위)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Sensitivity	
			M $\pm$ SD	t/F(p)
Gender	Male	54(45.4)	3.12 $\pm$ 0.43	-5.43 ($<.001$)
	Female	65(54.6)	3.61 $\pm$ 0.54	
Academic grade	High school grade 1	33(27.2)	3.26 $\pm$ 0.60	1.25 (.290)
	High school grade 2	45(37.8)	3.43 $\pm$ 0.52	
	High school grade 3	41(34.5)	3.45 $\pm$ 0.53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evel	Upper	12(10.1)	3.36 $\pm$ 0.66	0.62 (.540)
	Middle	82(68.9)	3.43 $\pm$ 0.52	
	Low	25(21.0)	3.29 $\pm$ 0.60	
Satisfaction with sex education	Satisfaction	22(18.5)	3.59 $\pm$ 0.64	2.80 (.065)
	Average	79(66.4)	3.38 $\pm$ 0.53	
	Dissatisfaction	18(15.1)	3.19 $\pm$ 0.4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action	57(47.9)	3.44 $\pm$ 0.55	0.71 (.494)
	Average	49(41.2)	3.38 $\pm$ 0.53	
	Dissatisfaction	13(10.9)	3.24 $\pm$ 0.61	

SD.=standard deviation.

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60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젠더 감수성을 약 60%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젠더 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학생)($\beta=.37, p<.001$)과 사회적 지지($\beta=.20, p=.045$)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Social Support, and Gender Sensitivity

(단위: 점)

Variables		Mean±SD	Range
Media literacy	Critical understanding	3.80±0.57	1~5
	Technological utilization	4.15±0.59	
	Self expression	3.58±0.80	
	Tolerance	3.69±0.77	
	Publicness	3.04±0.99	
	Total	3.77±0.50	
Assertiveness	Content domain	3.29±0.50	
	Verbal domain	3.47±0.71	
	Non verbal domain	3.53±0.58	
	Total	3.40±0.50	
Social support	Parent's support	4.11±0.77	
	Teacher's support	4.10±0.73	
	Friend's support	3.98±0.73	
	Total	4.06±0.67	
Gender sensitivity	Misogyny	3.49±0.79	
	Hostile sexism	3.36±0.77	
	Benevolent sexism	3.43±0.79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3.36±0.74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3.30±0.48	
	Total	3.39±0.55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among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Social Support, and Gender Sensitivity

(단위: 점)

Variables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Social support	Gender sensitivity
	r (p)			
Media literacy	1			
Assertiveness	.25(.007)	1		
Social support	.52(<.001)	.43(<.001)	1	
Gender sensitivity	.35(<.001)	.23(.012)	.37(<.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Gender Sensitivity

(단위: 점)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1.34	0.40		3.37	.001		
Sex (male)	0.40	0.09	.37	4.49	<.001	1.08	0.926
Media literacy	0.16	0.10	.15	1.56	.121	1.42	0.704
Assertiveness	0.05	0.10	.04	0.47	.642	1.24	0.806
Social support	0.17	0.08	.20	2.03	.045	1.29	0.775

F=65.84, $p<.001$, R²=.61, Adjusted R²=.60,

Dummy variables: Sex (ref.=female),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및 젠더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3.39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는 Ah [1]과 Kwon과 Shin [13]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점수(각각 3.85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충분히 고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젠더 관련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청소년기의 젠더 감수성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5]. 하위 영역별로 여성혐오 인식(3.4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인식(3.30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상적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성폭력과 같은 구조적 또는 관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5].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젠더 감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의 젠더 감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Ah [1]와 Choi 등[5], Kwon과 Shin [13], Kim과 Seo [20]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젠더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권익과 젠더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도 남학생의 젠더 감수성은 충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3]. 따라서 향후 젠더 감수성을 단일한 가치로 접근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내용의 교육과 교수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에서 성폭력 인식과 공감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5점 만점 중 평균 3.77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다. 하위영역별로 기술적 활용(4.15점)이 가장 높았고, 공공성(3.04점)이 가장 낮게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Yuk과 Park [1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기술적 활용은 미디어 이용 및 활용기술을 의미하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1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활용 능력에서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반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참여, 유해 사이트에 대한 대처, 사회적으로 유의한 온라인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하는 공공성 영역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15,16]. 이는 고등학생들이 미디어를 정보를 탐색하거나 오락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책임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활용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이 기술적 활용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소통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은 공공성 영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자기표현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40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나, 대인관계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로, Kim과 Ahn [21]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점수(3.55점)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영역별로 비언어적 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내용적 영역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Kim과 Ahn [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언어적 영역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적절한 표정과 태도 등의 표현 방식과 관련 있으며, 내용적 영역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를 표현하거나 거절하는 능력과 관련된다[8,18].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언어적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말의 내용적 영역을 강화하는 교육적 지원을 통해 고등학생의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4.06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이 가까운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사회적 지지라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22, 23]. 고등학생 시기는 자율성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이 시기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성이나 젠더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모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의 지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지지가 가장 높게 보고된 Park [22]와 Kim [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일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지지 경험이 또래 관계 속에서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 간 인정과 정서적 지지를 촉진할 수 있는 집단 활동, 상담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친구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은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젠더 감수성이 높다고 보고한

Kwon과 Shin [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교육적 개입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표현과 젠더 감수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기표현은 자신의 주장 전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상호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13] 젠더와 관련된 불평등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민감성과 연관될 수 있다. 특히 젠더 감수성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는 다양성의 인정과 공감 능력은 자기표현이 내포한 상호성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24]. 이에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고등학생의 자기표현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젠더 감수성 간의 관계에서 가까운 주변인과의 지지적 상호작용이 사회적 규범이나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젠더와 같이 성평등 인식이 낮고 고정관념이 개입되기 쉬운 [14] 주제를 다룰 때, 이러한 심리적 안전성은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젠더 감수성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5].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별이 성인지 감수성을 예측하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임을 보고한 Ah [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오늘날 여학생의 젠더 감수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유리천장, 성폭력 범죄 등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젠더 불평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이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은 가까운 주변인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이는 젠더 감수성이 개인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환경과 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지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은 젠더 감수성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들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설계할 때에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일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가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의 젠더 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고 자기표현을 잘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젠더 감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 결과, 젠더 감수성에 실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젠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양상을 고려한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젠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젠더 감수성과의 상관성이 확인된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을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설정한 구조적 분석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고등학생 대상 젠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실행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Ah YA.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f parent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gender sensitivity of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20;51: 79-98. <https://doi.org/10.20993/jSSW.51.4>
2. Lee JH, Park WH, Jun SY, Lee SJ.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a gender sensitivity inventory for adolescenc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4;29(4):481-504.
3. Ahn SS, Kim YS, Kim KM. Public survey on the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and its barrier factors: Focusing on daily domestic activities. Research report.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Report No.: 2009-21.
4. Choi J, Chung D. Influence of sexual attitudes, personal relations, and mobile media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formation Society & Media*. 2016;17(2):1-34.
5. Choi MJ, Park YK, Ha YS, Kim EH. Influences of awareness of sexual media literacy and sexual attitude on gender sensitiv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 convergence. 2023;21(12):25-35.
<https://doi.org/10.22678/JIC.2023.21.12.025>.
6. Kim YJ, Kim HJ. The effect of art criticism education focusing on AI-based art on high school student's media literacy.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021;35(3):29-56.
 7. Byun CJ, Kim SH. Assertion Training Program. *Science Education*. 1980;13(1):51-85.
 8. Shon KS, Ju Y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ssessing adolescents' self expression in Kore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4;16(3):77-104.
 9. Jeong GC, Lee MJ. Moderating effects of self-expression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help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9):268-280.
 10. Kerres MC, Kilpatrick DM.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Psychology in the Schools*. 2002;39(1):1-18.
 11. Tolman D, McClelland SI. Normative sexu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decade in review, 2000-2009.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1;21(1):242-255.
 12. Cho JM, Yang HR, Han MY, Cho AM.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 knowled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2024;10(4):53-78.
<https://doi.org/10.36697/skya.2024.10.4.53>
 13. Kwon HJ, Shin SJ. The effect of adolescent sexual media literacy and sexual permissivenes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0;34(1): 22-34.
<https://dx.doi.org/10.5932/JKPHN.2020.34.1.22>.
 14. Kim KR, Seo EH. Exploring the construct and developing the scale of gender sensibilit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20;41(4):63~90.
<https://doi.org/10.18612/cnujes.2020.41.4.63>.
 15. Ahn JI, Seo YK, Kim SM. A study on the generation gap in media literacy awareness in social media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12;26(6):129-176.
 16. Yuk MS, Park YH.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edia Literacy, family strength, self-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for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9):619-637.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9.619>.
 17. Rakos RF, Schroeder HE.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NY: Bio Monitoring Applications; 1980.
 18. Nolten PW.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1994.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 Lee MR.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Taegu University; 2001. 72p.
 20. Kim KR, Seo EH. The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8):427-44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8.427>.
 21. Kim SY, Ahn HR. A study on a photo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the youth: A case of LTP. *Journal of Art Education*. 2015;42:149-180.
<https://doi.org/10.35657/jae.2015.42.0.007>.
 22. Park BM.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5;25(11): 751-762.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11.751>.
 23. Kim DY.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on academic self-concept.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2011. 54 p.
 24. Im HS. Concept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1;12(5):505-518.
<https://doi.org/10.22143/HSS21.12.5.36>
 25. Kim YH,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66-175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3.166>

Establishing the Influence of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and Social Support on Gender Sensitivity of High School's Students

Yang, Namyoun¹⁾ · Park, Ji-Seon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 PhD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Our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and social support on gender sensitivity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19 students from one high school in Province C. We collected data using self-assessment questionnaires from March 24 to May 1, 202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Gender sensitivity significantly differed by sex($t = -5.43, p < .001$). The gender sensi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edia literacy ($r = .35, p < .001$), assertiveness ($r = .23, p = .012$), and social support ($r = .37, p < .001$).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gender sensitivity were sex($\beta = .37, p < .001$) and social support ($\beta = .20, p = .045$).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sex and social support explained 27% of the variance in gender sensitivity. **Conclusion:** It is pivotal to implement gender-specific strategies in students to improve their gender sensitivity. It is also essential to develop program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to enhance gender sensi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Media literacy, Assertiveness, Social support, Gender sensitivity, High school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i-Seon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14, Fax: +82-41-850-0315, E-mail: psmile7@daum.net